



낮엔 천사 밤엔 악마 모두 솔직한 내 모습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 임윤아

새벽마다 다른 인격에 지배 당하는 선지
내성적인 모습과 거침없는 두 모습 연기
“타인의 시선따라 내 모습을 선택하기도
성숙하고 다양한 색깔 가진 사람이고 싶어”

이 감독과 하는 두 번째 작업인 만큼 좀 더 편하게 소통했
고, 믿음도 있었다고 한다.

임윤아는 “감독님과 대화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며 “감독님이 직접 선지의 표정을 표
현해 보여주시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영화 속 ‘밤 선지’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조용하고 소
심한 ‘낮 선지’와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다. 임
윤아는 “어느 정도의 톤으로, 어떤 웃음소리를 만들어 나갈
지 감독님과 같이 맞춰나갔다”고 했다.

새벽마다 다른 인격이 된다는 설정이나 각 캐릭터의 인간
미를 디테일하게 살릴 이 감독의 연출도 기대됐다고 한다.

임윤아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감독님이 영화
를 통해 여러 동화적인 장면을 그려내실 수 있겠다는 상상이
됐다”고 말했다.

무해한 청년 백수 길구를 연기한 상대 배우 안보현에 대
해서는 ‘잘먹같은 역할’이었다고 표현했다.

임윤아는 “현장에서 스태프를 잘 챙기면서 친근하게 다
가가고, 연기할 때 집중하는 모습이 길구와 너무 잘 어울린
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올해로 서른여섯이 된 임윤아는 “30대가 된 이후로는 ‘어



른이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다”며 웃었다.

‘소녀시대 윤아’나 배우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이
무엇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고 했
다.

임윤아는 “활동하면서 보여드린 모습이 전부 저이지만,
타인의 시선에 의해 선택한 것들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성숙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로서의 경력에 대한 고민도 털어냈다. 그는 “코미디
가 가미된 작품을 자주 보여드려서 색깔에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고 싶다. 시간
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며 걸어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버스안내양’ 기억하시나요

JTBC 드라마 ‘백번의 추억’ 다음달 방송



1980년대 버스 요금을 걷고 하차를 돕던 안내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다음 달 방영된다.

JTBC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주연한 새 토일 드라마 ‘백번의 추
억’을 9월 13일 방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다미는 생계 때문에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면서도 대학 진학의
꿈을 버리지 않는 장녀 고영례, 신예은은 끼 많고 흥 많은 버스 안
내양 서종희 역을 맡았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40년 전 한국의 풍경을 담아내고 그 시절
풋풋한 청춘 멜로를 그려낼 예정이다.

‘일타 스캔들’, ‘오 나의 귀신님’의 양희승 작가가 극본을 썼고,
‘서른, 아홉’의 김상호 PD가 연출한다.

/연합뉴스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

10년전 약속 지켜질까

KBS ‘다큐 3일’ 종영 3년 만에 22일 특별판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던 10년 전 약속 덕에 종영 다큐멘터리
가 잠시 되살아나게 됐다.

KBS 측은 22일 오후 10시 2TV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3일’은 KBS 2TV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방
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3년 전에 종영한 프로그램이 특별판으로 다시 시청자와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방영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
다.

당시 안동역 편에서 기자 여행 중이던 여대생 두 명과 PD가 10
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이 영상이 최근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촬영 중 재회를 약속한 PD는 이미 KBS를 그만둔 상태다. 두 여
대생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10년 전 약속이 과연 지켜
질지는 미지수지만 그 과정이 모두 특별판에 담길 예정이다.

KBS는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 그라
서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식지않는 ‘케데헌’

OST ‘골든’ 영국 싱글 차트 2위

‘소다 팝’ 6위·‘유어 아이돌’ 8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
이팝 데몬 헌터스’ (이하 ‘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이 영국 오코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장기간 존재
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차트에 따르면 ‘케데헌’에 등장하는 가상 걸
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 (Golden)은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2위로 7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노래는 93위로 처음 해당 차트에 데뷔했고 이후 31
위, 20위, 9위 4위, 1위, 2위 등을 기록하며 K팝으로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을 밟았다.

영화 속 헌트릭스의 경쟁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가 부른
‘소다 팝’ (Soda Pop)은 6위, ‘유어 아이돌’ (Your Idol)은



8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걸그룹 트와이스가 부른 ‘케데헌’
OST ‘테이크 다운’ (Take Down)은 47위, 같은 영화에 삽
입된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 (Strategy)는 64위로 각각
집계됐다. 이 밖에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 (JUMP)는 한
계단 오른 35위로 4주 연속 진입했고, 멤버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 (APT.)는 다섯 계단 오른 39위로 42주 연
속 차트에 머물고 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갯츠아
이의 ‘가브리엘라’ (Gabriela)는 같은 차트에 97위로 재진
입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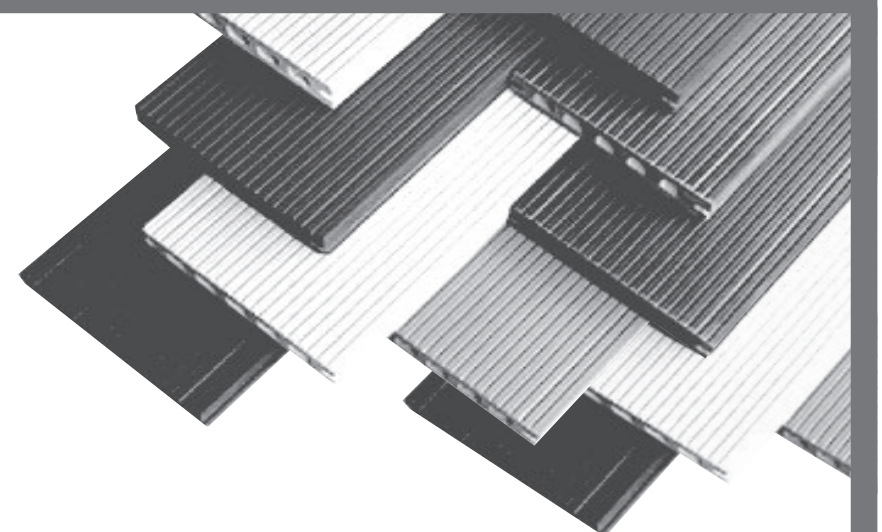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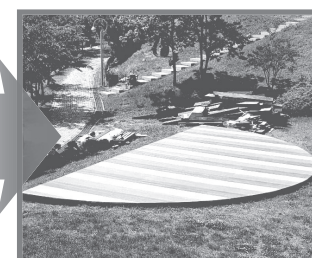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